

교회의 은퇴는 은혜스런 퇴임

제직 48인 은퇴식 · 안종호 원로장로 추대식

지난 1월 7일(수) 오후 5시에 은퇴제직들과 당회원이 지하 친교실에 모여 이수영 목사의 사회로 간담회를 가졌다. 은퇴제직들은 당회원에게 앞으로 새 교우와 구역관리를 위해서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했다.

안종호 장로는 “은퇴하는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속에 거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퇴의 ‘은(隱)’은 ‘숨다’, ‘퇴(退)’는 ‘물러나다’ 이니 물러나 숨어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온 우리에게 교회의 은퇴는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일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니 오히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세였는데, 이 때 아브라함의 3가지 특징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순종이었다. 성경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 은퇴에 임하는 모든 제직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다.

간담회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교회의 은퇴는 은혜스런 퇴임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주기도문으로 6시 35분에 간담회를 마쳤다.

1월 11일(주일) 2부 예배 시간 중에 최영진, 이창희 장로를 비롯하여 서리집사 32명 등 48명의 제직 은퇴식이 있었다. 가슴에 꽃을 달고 강대상 아래 두 줄로 도열한 이들을 대표하여 윤경수 공로 집사가 교회로부터 기념품을 받았다. 본인의 건강 혹은 아들 장로 장립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제직을 빼고는 모두 엄숙하게 참여하여 은퇴식을 빛냈다.

3부 예배 후 12시 30분에는 안종호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었다. 유민자 권사와 함께 나란히 강단에 앉은 모습은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연세대학교 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40여 년간 교육계에서 봉사한 후 경신학교



◇ 원로 장로로 추대된 안종호 장로

교장을 끝으로 퇴임한 안종호 장로는 본교회에서 28년간 장로로 시무했으며 평생을 찬양대에서 봉사해왔다. 이런 분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사라는 말과 함께 기념패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안종호 장로는 “인도의 간디는 예수는 좋아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비판의 표현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 새문안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직회와 교우 여러분이 원로장로로 추대하여 준 것에 감사하다”는 요지로 인사말을 했다.

이수영 목사는 “새문안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는 교우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며 교회 발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족적과 공로가 밀거름이 되어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축복 기도로 원로장로 추대식을 마쳤다. ■

<취재 · 정리/ 김기숙 권사>